



손골편지 스물여섯 번째

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선조님들은 더위를 물리치고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시원한 곳에서 건강해지는 음식을 먹는 복달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는 날이 복날이구요. 광교산 밑의 우리 성지에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면 그보다 더 좋은 복달임은 없겠지요?

중복과 말복 사이가 길면 그 해는 더위가 길대요. 올해가 그런 해구요. 한데 복날이 세 번 있다고 알고들 계시죠? 사실은 다섯 번이라네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그리고 수복까지^^

계곡과 해수욕장은 여름이 성수기이지만 성지는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날이면 파리가 날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7월은 많은 순례교우들이 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오시는 분들마다 몸도 쉬고 맘도 쉬며 하늘의 위로와 격려마저 얻어가셨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시는 교우분들에게 자주 듣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도리 신부님의 고향에서 왔다는, 맷돌로 만든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꼬꼬리도 아닌데 못 찾겠다니... 우리 성지만의 고유한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가이거늘... 하지만 현재의 자리에 놓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올 봄, 맷돌 십자가를 찾기 쉬우라고 십자가 주변 단풍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진 곳이라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처음 성지에 온 교우의 입장에서 섬세히 살피지 못한 제 탓입니다.

궁리 끝에 맷돌 십자가 옆에 있는 예수성심상 뒤쪽부터 맷돌 십자가 전까지 있던 잡목들을 정리하고 작은 꽃밭을 조성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상이 보기에 훨씬 편안해졌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으로 더럽혀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도리 신부님을 기리는 십자기도 전보다 잘 드러났습니다. 윗동산으로 오르는 오솔길 또한 잘 보이구요. 전에는 잡목들로 가려서 오솔길의 입구조차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상도 맷돌 십자가도 시각적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손골마리아상을 조각한 한진섭 작가가 ‘손골마리아 동산’과 ‘도리 쉼터’의 표지석을 손수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돌의 재료는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상주석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표지석의 ‘있고 없고’ 차이가 사뭇 큼니다.

그 바쁜 와중에 돌을 찾고 깎고 새기고 옮기고 놓아준, 우리 성지의 예술자문위원이기도 한 작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간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외 화장실 옆길로 사람들이 오가는데 화장실 입구가 흰히 보여 좀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길과 화장실 사이의 화단에 개나리를 심어 일단 시각적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무가 자라면 그래도 좀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일에 늘 열과 성을 다하는 스테파노 형제에게 고맙습니다.

손골 마을의 숙원 사업이던, 기습 폭우로 인한 재난을 방제하는 우수관 공사를 용인시의 주관으로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우수관의 일부가 성지 소유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주교님께서 토지 사용을 허가해 주셔서 공사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난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일에는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골 마을의 통장님도, 그리고 아랫집의 광고산장 주인 내외분도 고마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이면 매년 음악하는 단체에서 미사 봉사를 합니다. 첫째 주는 포도나무 찬양단, 홀수달 둘째 주는 프레체스 합창단, 짝수달 둘째 주는 요한과 데레사 부부, 셋째 주는 아벤투스 찬양단, 넷째 주는 손골루멘 관현악단입니다. 지난 달에는 프레체스 합창단과 손골루멘 관현악단이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복된 미사였습니다.

이 두 팀은 가을이면 우리 성지에서 정기 음악회를 각각 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 3월의 순교자 현양대회에도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봉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모든 음악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달 23일에는 귀한 손님이 성지에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성지의 도리 신부님과 오메트르 신부님이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이시라는 걸 다들 아시죠? 하지만 조선시대가 아니라 현재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신부님이 한국에서 사목하신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걸요? 군포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허보록 신부님입니다. 성함만 그렇지 프랑스 분입니다.

허보록 신부님이 파리대교구의 샤를 신부님과 함께 우리 성지에 방문해서 저와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샤를 신부님은 내년의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답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프랑스 성인 신부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손골 성지를 찾았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우렁찬 8월입니다. 성지의 개울물 소리도 한창입니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골바람도 끝내줍니다. 옛 선교사 신부님들이 손골을 찾아 쉬었다 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무 에어컨만 찾지 마시고 청정한 자연과 편안한 성지도 찾으시는 건 어떠신지요?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 순교자성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골에서 다미아노 Dream.

손골마리아동산 & 도리쉼터



성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Fr.김기창, Fr.최광호, 강민준, 강순진, 강식순, 강원덕, 강윤숙, 강혜승, 강혜영, 경규미, 고민석, 고종희, 광외심, 권금숙, 권택인, 김경미, 김광조, 김기연, 김남희, 김도훈, 김도희, 김동은, 김명희, 김문경, 김미영, 김상훈, 김성겸, 김수현, 김순태, 김순환, 김시환, 김억래, 김연철, 김영자, 김인숙, 김재성, 김재우, 김재훈, 김정자, 김종이, 김주봉, 김창기, 김창로, 김청자, 김춘기, 김태경, 김한철, 김현기, 김혜선, 김혜옥, 김홍일, 남정훈, 문기덕, 민경화, 박경수, 박광윤, 박금자, 박미애, 박성옥, 박순희, 박완자, 박인숙, 박재영, 박지미, 박창호, 배제호, 백미경, 백정란, 성순옥, 송경호, 송홍석, 신금란, 신동옥, 신현순, 안영기, 안용수, 양미진, 양종만, 엄용희, 여승현, 오병택, 오용일, 오이진, 유현정, 윤상용, 윤중필, 윤지혜, 윤혜주, 윤호용, 이경숙, 이경옥, 이덕경, 이명미, 이문복, 이상순, 이세영, 이승준, 이영란, 이웅복, 이윤정, 이은화, 이정미, 이정숙, 이종숙, 이택건, 이해경, 이형원, 이호성, 임동구, 임상희, 임희자, 장명자, 전주원, 정경순, 정구승, 정모유, 정보혜, 정소영, 정승희, 정애란, 정연순, 정행자, 조성혜, 조영채, 주미선, 주재선, 지영선, 최경숙, 최경자, 최공호, 최선미, 최수환, 최영진, 최훈근, 최희선, 한미녀, 한수정, 한애숙, 한지원, 함윤희, 허정희, 홍보경, 홍수경, 홍혜영, 홍혜진, 황애현, 황혜정, (주)메디웰코스타

(2026년 6월 성지후원금 총 3,608,000원)

손골성지 소식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손골성지에서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부름심을 받으신 후원자를 위해서는 사망미사를 포함 3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사시간 안내

주일 · 평일 오전11시 (월요일 없음)

문의 : 사무실 ☎ (031) 263-1242

후원계좌 안내

신 협 : 03227-12-001983

농 협 : 235100-51-010119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예 금 주 : (재)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손골성지 홈페이지 OPEN

손골의 고요함을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기도와 쉼이 있는 손골성지의 다양한 소식과 은총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손골성지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ngol.or.kr>



손골성지 관련 저서

- “성(聖) 도리 신부와 손골”
(한글, 불어, 영어) (윤민구 신부 외 지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공역)

- “성(聖) 도리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도리 신부와 병인박해”
(한글) (윤민구 신부 지음)
- “성(聖) 도리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역)

※ 이 책들은 손골성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